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67

松江で

ものづくり体験

土から生まれる気持ち
島根松江ならではのてまり
和紙を漉いて「出雲」を感じる
松江の伝統工芸「八雲塗」を体験しよう！

만들기 체험 in 마쓰에

흙에서 태어나는 기분
시마네 마쓰에만의 테마리
와시(和紙)를 떠서 '이즈모'를 느끼다
마쓰에의 전통공예 '야쿠모누리(八雲塗, 칠기 공예)'를 체험해보자!



흙에서 태어나는 기분

하키모바 리리아

오래전부터 인간은 음식을 보관·조리·담는 것에 식기를 사용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식기의 소재나 만드는 방법도 변화했지만,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자기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도자기는 조문시대(縄文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조문 시대'라는 이름은, 그 시대의 도자기에 '조문 무늬(줄무늬)'가 입혀져 있던 것으로부터 왔다.

이후, 도자기의 제작 기술은 크게 진화하였고, 일본의 도예는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을 흡수하며, 예로부터 전해져 온 풍습도 잘 남겼다. 특히, 일본의 도자기는 다도의 변형과 함께 발전했다는 설이 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식 도자기에 매우 놀랐다. 제일 먼저, 그 모양에 매력을 느꼈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쫓는 듯한 디자인에 예술성과 실용성이 섞여 있다. 나의 고향 러시아나 유럽에서 자주 보던, 매끄러운 표면에 모양이 잡힌 접시나 컵이 아니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알맞게 들어맞는 형태로 된 그릇은 손으로 들기 편하다. 사람에게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꼈다.

시마네현에 살기 시작하면서, 현대의 가게에서는 특수한 디자인의 수제 도자기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말차 찻집에 갈 때마다, 차가 어떤 찻잔에 나올지 항상 기대된다. 또한, 니혼슈(일본주) 전문점 중에도 자신이 마실 술잔을 고를 수 있는 가게가 있다. '오하시칸'이라는 마쓰에의 여관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음식 종류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식기가 변한다. 가게에서 고른 식기는, 오너의 취향을 손님에게 전달하며, 가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즈모 칸베노사토> 체험 공방에 도예 체험을 하러 갔을 때, 동료들은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나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무척 기대하였다.

이즈모 칸베노사토는 공예관(工藝館)과 민화관(民話館)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 주변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숲도 펼쳐져 있다. 본관

土から生まれる気持ち

大昔から人間は食べ物の保管・調理・盛り付けに食器を使っていた。時代が変わる中で、食器の素材や作り方も変化を遂げたが、古代から現代に続いて使われている物は陶の食器だ。

日本では、最も古いものとして発掘された陶器は縄文時代にさかのぼる。そもそも縄文時代という時代の名前は、その時代の陶器に縄の模様が施されていたところから来ている。

それ以来、陶器の製作技術は大きく進化し、日本の陶芸はその新しい技術やスタイルを吸収しながら、古くから伝わってきた風習も上手に残せた。特に、日本の陶器は茶道の繁栄と共に発展したという説がある。

日本に初めて来たとき、和風の陶器にとっても驚いた。まず第一に、その形に魅力を感じた。自由で自然な形を追求するようなデザインに、芸術性と実用性が混ざり合っている。私の故郷やヨーロッパでよく見たつるつるした表面で形が決まった皿やカップではなかった。手で持ったときに、指がちょうどはまるような形になった器が手に持ちやすい。人によって人のために作られたものだと感じられた。

島根県に住み始め、県内の店ではよく特殊なデザインの手作りの陶器が使わ

ハキモヴァ・リリヤ

れ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お抹茶の喫茶店に行くたび、お茶はどんな茶碗で出てくるかいつも楽しみにしている。また、日本酒の専門店の中にも、自分のお酒を飲むお猪口を選ぶことができる店がある。大橋館という松江の旅館の中にある私の好きなレストランでは、食べ物の種類だけではなく、季節によって食器が変わる。店に選ばれる食器はオーナーの趣味を客に伝え、店の特別な雰囲気を作り出していると思う。

今回出雲かんべの里へ陶芸を体験しに向かったときに、仲間はどんなものを作るか、自分はどんなものができるか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た。

出雲かんべの里は工芸館や民話館の集まった場所だ。その周辺に自然の中を楽しめる森も広がっている。本館の隣に、曜日によってシェフの変わる面白いカフェもある。たとえば、水曜日と木曜日には、ビーガンカフェを営業している。

2階が上がって、機織り工房を通り過ぎ、陶芸工房にたどり着いた。工房の前で石橋 優さんと山本 将之さんに歓迎され、中を案内され、陶芸作品を作る過程を説明された。粘土を練って固さを調整し、空気を抜くため、菊練りでさらにしっかり練る。この工房には、電動や手まわしのろくろがあり、粘土を好きな形に成形し



옆에는 요일에 따라 주방장이 바뀌는 재미있는 카페도 있다. 예를 들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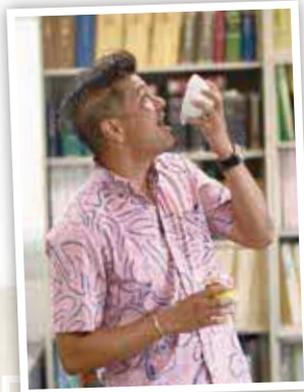
2층으로 올라가, 베틀 공방을 지나, 도예 공방에 다다랐다. 공방 앞에서 '이시바시 유타카' 씨와 '야마모토 마사유키' 씨의 환영과 안내를 받고, 도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설명을 들었다. 점토를 반죽해 강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빼기 위해 기쿠네리(한국명: 꼬막 밀기) 방법으로 더욱 꼼꼼하게 반죽한다. 이 공방에는, 전통과 손으로 돌리는 물레가 있어, 점토를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한 뒤, 만들어진 것을 가마에 15시간 정도 굽는다. 가마 안의 온도는 1,240도까지 이른다. 이곳의 가마는 마이콘식의 전기 가마로, 열이 일정하게 전달되는 덕분에 도자기가 균일하게 구워진다. 한번 초벌구이가 되면, 도자기에 도예 체험자가 사전에 고른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한다. 완성품은 1~2개월이면 완성된다.

시마네현 출신의 야마모토 씨와 이시바시 씨는 10여 년 전 이즈모 칸베노사토 전시회에서 만났다. 모두 오사카에서 도예를 배우고 고향에 돌아와, 좋아하는 도예 활동을 이어갔다. 둘의 도예 스타일은 매우 다르다. 이시바시 씨는 현대미술에

흥미를 갖고, 주로 인테리어용 소품을 만들고 있다(건물, 자동차 등). 그 작품은 시마네현의 기념품을 취급하는 '시마네 후루사토관'과 '마쓰에시 신지 후루사토 삼립공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야마모토 씨는 전통공예나 예술을 기본으로 하는 표현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야마모토 씨가 만드는 그릇은 '마쓰에 역사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둘 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한다. 곧(7월 28일~8월 3일) 마쓰에시의 이치바타 백화점에서는 이시바시 씨의 개인전도 개최된다.

두 사람은 3년 전쯤 자신들이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과 손님에게 이를 환원하기 위해, 또한, 도예 작품의 새로운 의장들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도예 연구소를 설립했다.

나는 이전부터 물레를 체험해 보고 싶었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이번 취재로 처음 도예 공방을 방문했는데,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잘 만들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을 매우 즐길 수 있었다. 물에 젖은 점토의 감촉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열중하게 된다. 이즈모 칸베노사토의 도예 연구실에서 도예 체험을 한 덕분에 또 도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태어나, 나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이전까로부터 체험을してみたかったが、難しそうだったので行かずにいた。今回の取材で初めて陶芸工房を訪れたが、先生方の指導のおかげで上手に作ることもできたし、作る過程をとっても楽しめた。水に濡れた粘土の感触で気持ちが落ち着き、夢中になってしまう。出雲かんべの里のとうげい研究所で陶芸を体験できたおかげで、また陶芸を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生まれ、私に新たな趣味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てから、できたものを窯に15時間ほど置いて焼く。窯の中の温度は1240度まで達する。この窯はマイコン型の電気窯で、熱が一定に伝わるおかげで陶器が均一に焼かれる。一度素焼きされたら、陶器は陶芸体験者に事前に選ばれた釉薬がかけられ、本焼きされる。完成品は1~2ヶ月で仕上がる。

島根県出身の山本さんと石橋さんは、約10年前に出雲かんべの里での展示会で出会った。二人とも大阪で陶芸を学び、故郷に帰って好きな陶芸を続けた。作る陶芸のスタイルはかなり違う。石橋さんは現代美術に興味を持ち、主にインテリア用の小物を作っている(建物、車など)。その作品は島根県の土産物を扱う島根ふるさと館や松江市宍道ふるさと森林公園等で買うことができる。山本さんは伝統工芸やアートに基づいた表現作品を制作している。彼の作る器は松江歴史館等で販売されている。二人とも展示会にも作品を出品することができる。もうすぐ松江市の一畑百貨店では、石橋さんの個展も開催される。

二人は3年ほど前に、自分達の積み上げてきた技術や経験を共有し、地域やお客さんにそれらを還元するため、また、陶芸作品の新たな意匠を研究するため、ここにとうげい研究所を設立した。



시마네 마쓰에만의 테마리

이 정현

‘테마리’란 중국에서 7세기경 일본으로 들어온 귀족 문화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색실 공, 손공 자수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8), 에도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참근교대(각 지역의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에도로 오가게 하던 에도 막부의 제도) 출장 선물로 각지에 퍼졌다고 한다.

마쓰에의 ‘테마리’는 마쓰에번 귀족 집안의 하녀가 만들기 시작하여, 후에 성하 마을에도 퍼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둥근 모양에서 ‘무슨 일이든 둥글게 지나가기를’이라는 염원을 담아 만들어, 경사의 답례품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혼수품에 넣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 전통공예 ‘테마리’는 주로 여러 가지 색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마쓰에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마네의 재료를 사용한 마쓰에만의 ‘테마리’가 있다. <마쓰에 와시 테마리 공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 전통 종이인 ‘와시(和紙)’와 전통 염색 실인 쪽 염색실을 사용하여 테마리를 만들고 있다. 기누카와 쓰네노 씨가 마쓰에만의 테마리를 창시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금까지 전해지고, 현재는, 기누카와 쓰네노 씨의 자부(子婦) 기누카와 레이코 씨가 공방에서 기법을 계승하고 있다. 공방은 마쓰에성 근처의 고민가에 있으며, 일본식 정원이 보이는 전시 갤러리와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들도 테마리 만들기를 체험해 보기 위해 공방을 방문하였고, 기누카와 씨와 스태프 야마모토 씨가 맞이해주셨다.

<마쓰에 와시 테마리 공방>에서 만들고 있는 테마리는 일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실로 만드는 ‘카가리 테마리’, 일본 전통 종이 와시(和紙)와 자수실을 이용한 ‘와시 테마리’, 전통적인 염색 기법인 아이즈메(쪽 염색)실로 만든 ‘아이 테마리’ 세 종류가 있다. 이 중에, ‘와시 테마리’와 ‘아이 테마리’가 시마네현의 특산품을 재료로 하여 만든 공예품이다.

‘와시 테마리’는, 마쓰에시 야쿠모정(松江市八雲町)에서 만들어진다. 이즈모 민예지와 프랑수 자수실을 사용한다. 자수로 구역을 나누어,



島根松江ならでのてまり

イ・ジョンヒョン

「てまり」とは中国から7世紀ごろ日本に入ってきた貴族文化の一つである。日本では江戸時代(1603-1868)、江戸の女性の間で流行し、参勤交代(各地域の大名を定期的に江戸に行ったり来たりさせた江戸幕府の制度)の出張土産として各地に広がったとされている。

松江の「てまり」は、松江藩御殿女中が作り始め、後に城下の町にも広がったと言われている。その丸い形から「何事もまあるくおさまりますように」という願いを込めて作られ、慶事の贈答品として利用されたり、昔は嫁入り道具に入れる風習もあったという。

日本伝統工芸の「てまり」は、主に何色ものの糸で作られている。しかし、松江には古くから伝わる島根の材料を使った松江ならでの「てまり」がある。<松江和紙てまり工房>は全国で唯一日本の伝統紙である和紙と伝統染糸の藍糸を使っててまりを作っている。絹川ツネノ氏が松江ならでのてまりを創始し、弟子たちに教え、今に伝わっている。現在は、絹川ツネノ氏の子婦である絹川令子さんが工房で技法を受け継がれている。工房は松江城の近くの古民家にある、日本式庭の見える展示ギャラリーと体験教室を運営されている。私たちもてまり作りを体験してみるため工房を尋ね、絹川さんとスタッフの山本さんが迎えてくださった。

<松江和紙てまり工房>で作られているてまりは、日本で最もよく見られる色糸で作る「かがりてまり」、和紙と刺繍糸を使った「和紙てまり」、伝統的な染色技法の藍染の糸で作られた「藍てまり」の3種類がある。この中で、「和紙てまり」と「藍てまり」が島根県の特産品を材料にして作られた工芸品である。

「和紙てまり」は、松江市八雲町で作られている出雲民芸紙とフランス刺繍糸が使用されている。刺繍で区分けし、区域別に「ちぎり絵」という和紙を手でちぎって貼る絵画技法で花の図案が多いのが特徴だ。松江市の花である椿や島根県の花の牡丹があしらわれている。また、糸で幾何学文様、日本伝統文様、特に魔よけと幸運を引き寄せるといふ「麻の葉」の柄を刺繍する。糸を使ったりてまりは他の地域にも多いが、和紙を使うてまりは松江のてまりが唯一である。出雲民芸紙は丈夫で、破れにくいし、長持ちするので、和紙てまりを後世に残すのに適している材料だ。

「藍てまり」は島根県安来市広瀬町の城下の町で1824年から伝わる「広瀬紺」に使われる藍染めの糸が使用されている。島根県無形文化財「広瀬紺」の技術保持者の故天野圭氏の後継者が技術を受け継ぎ、その伝統が守られている。この天野家の藍色一つに濃淡で色付けられその染糸でてまりを作る。糸でグラデーションを入れるように色を組み合わせる幾何学文様を表現する。藍



구역별로, '치기리에'라는 와시를 손으로 찢어 붙이는 회화 기법으로, 꽃 도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마쓰에시의 꽃인 동백꽃이나 시마네현의 꽃 모란이 꾸며져 있다. 또한, 실로 기하학문양, 일본 전통 문양, 특히 마귀를 쫓고 행운을 부른다는 '아사노하(삼일)' 무늬를 수놓는다. 실을 사용한 테마리는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와시'를 사용하는 테마리는 마쓰에의 테마리가 유일하다. 이즈모 민예지는 튼튼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와시 테마리를 후세에 남기기에 좋은 재료이다.

'아이 테마리'는 시마네현 야스기시 히로세정(安来市広瀬町)의 성하 마을에서 1824년부터 전해오는 직물 기법 '히로세가스리(廣瀬緋)'에 사용되는 '아이조메(쪽 염색)' 실을 사용하고 있다. 시마네현 무형문화재 '히로세가스리'의 기술 보유자 고 아마노 케이 씨의 후계자가 기술을 이어받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아마노가의 쪽색 한 가지 색의 농담으로 색을 입힌 염색 실로 테마리를 만든다. 실로 그리데이션을 주듯이 색을 조합하여 기하학 문양을 표현한다. 아이조메 쪽 염색실은 보통 테마리 재료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으로, 젊은 사람이나 남성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한다.

공방에서는 세 종류의 테마리를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다. 테마리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마쓰에 와시 테마리 공방>에서는 체험하기 용이하도록, 베이스를 만들어 두었다. 삼나무를 얇게 대패질한 재료를 둥글게 문쳐 베이스 공을 만들고, 그 위에 솜을 감는다. 그리고 그 위에 시침질용 실을 감는다. 만들 테마리 종류에 따라 추가로 와시를 붙여 베이스를 완성한다. 이후,

실로 기초선을 넣어 기하학무늬를 넣기 쉽게 기본 틀을 잡아주면 베이스 테마리의 완성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체험자는 부담 없이 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공방의 야마모토 씨의 지도를 받으며, '아이 테마리'를 만들어보았다. 히로세가스리의 쪽 염색실 다섯 색 중에 세 가지 색을 골라 그리데이션을 주면서 무늬를 만들었다. 기하학 문양으로 국화꽃무늬를 만든 완성품을 보았을 때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야마모토 씨의 지도를 받으며 한 땀 한 땀 수놓으니, 나 같은 초심자도 완성할 수 있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떨쳐질 정도로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완성되는 과정은 흥미로웠고, 완성품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함께 체험한 동료들의 테마리를 보았다. '와시 테마리'를 만든 팀은 다양한 색상의 와시의 치기리로 풍경 등을 표현하였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나와 같은 '아이 테마리'를 만든 동료는 같은 무늬를 골라 만들었지만, 선택한 실의 색깔에 따라 다른 느낌의 테마리가 완성되어, 비교해 보니 더욱 즐거웠다.

우리들의 테마리는 장식용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과 같은 장식품이 되기도 한다. <마쓰에 와시 테마리 공방>에서는 테마리를 이용하여,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으며, 판매도 하고 있다.

체험해 보니, 사용하는 재료나 노력에 비해서 체험 비용 및 판매되고 있는 테마리의 가격이 낮게 설정된 느낌이 들었다. 기누카와 씨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전수하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기누카와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수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좀처럼 어렵다고 한다. 만드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이 전통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실은 한국에도 중국에서 테마리, 색실 공이 전해졌지만, 지금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적어, 한국의 색실공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테마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테마리 만들기를 한번 체험하고 즐기면서, 전통문화 지키기에 참여,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一緒に体験した仲間のでまりを見た。「和紙でまり」を作ったチームはさまざまな色の和紙のちぎり絵で風景などを表現した。各自の個性がにじみ出る作品を見るのが面白かった。私と同じ「藍でまり」を作った同僚は同じ柄を選んで作ったが、選んだ糸の色によって違う感じのでまりとなり、比べてみるとさらに楽しかった。

私たちのでまりは飾り用だけでなく、実生活で使用可能なチャームにもなる。<松江和紙でまり工房>ではでまりを利用してイヤリング、ネックレスなどのアクセサリーも作ることができ、販売も行っている。

体験をしてみると、使う材料や努力に対し体験費用や販売されているでまりの価額が低く設定されている感じがした。絹川さん達が利益を目的とするのではなく、伝統を守りながら受け継ごうとされていることを強く感じた。絹川さんの話によると伝授者たちの高齢化により、伝統を守ろうとする気持ちの作り手を養う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という。作る楽しさを教えてくれるこの伝統が守られてほしいと思う。実は、韓国にも中国からでまりが伝えられたが、今は伝統を受け継いでいる人が少なく、韓国でも中国のものを知らない人もいる。日本のでまりは絶えずに続いてほしい。皆さんもでまり作りを一度体験して楽しみながら、伝統文化を守ることに、参加、挑戦してみてもはどうだろうか。

染め糸は普通でまりの材料としてはなかなか見られないもので、若い人や男性にもとても人気があるそうだ。

工房では3種類のでまりをすべて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でまりを最初から自分で作ろうとすると、多くの時間と手間がかかる。しかし<松江和紙でまり工房>では体験しやすいように、ベースが作ってある。杉の木に薄く鉋をかけた材料を丸めて地玉を作り、その上に綿を巻く。そしてその上につけ糸をかける。作るでまりの種類によって、追加で和紙を貼り付けベースを完成させる。この後、糸で基礎線をかけて幾何学文様を入れやすいように基本枠を作っておけば、ベースでまりの完成だ。ある意味、一番難しい過程を前もって準備していただけるので、体験者は気軽に本作業に入ることができる。

私は工房の山本さんの指導を受けながら「藍でまり」を作ってみた。広瀬緋の藍染め糸の5色のうち、3色を選んでグラデーションを入れながら柄を作った。幾何学模様で菊の花柄を作った完成品を見た時は難しそうにみえた。しかし、山本さんの指導を受けながら一つ一つ縫いつけると私のような初心者も完成できた。作業をしている間は雑誌が振り払われ、集中ができてよかった。また、完成する過程は興味深かったし、完成品は私にもできるという自信を吹き込んでくれた。

와시(和紙)를 떠서 '이즈모'를 느끼다

페리페 나시멘토



‘와시(和紙:화지)’는 일본의 전통 종이이다. 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이르게는 3~4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와시의 만드는 방법과 원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마네현에 계승되고 있는 와시 중 하나로 ‘이즈모 민예지’가 있다. ‘민예’라는 것은, 1926년부터 야나기 무네테, 하마다 쇼지, 가와이 간지로에 의해서 전개된 ‘민예 운동’에서 유래한다. 야나기 씨는 당시 미술계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 사용되던 수작업이나 일용품 등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활용할 것을 제창했다. ‘민예’는 ‘민중적 공예’의 줄임말이다.

한편, 1902년 현재의 시마네현 마쓰에시 야쿠모정(島根県松江市八雲町)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베 에이시로 씨는 종이를 만드는 집에서 자랐지만, 그 마을은 유명한 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베 씨는 직접 연구하는 등 기술을 연마하여, 시마네현을 순회하며 장인들을 가르치기도 되었다. 시간이 흘러, 1931년에 민예 운동을 제창하기 시작했던 야나기 씨가 마쓰에를 방문하여 아베 씨의 종이뜨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베 씨는 민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아베 씨가 수집한 각종 민예품과 귀중한 와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아베 에이시로 기념관>을 설립하고, 그 부속 시설로 와시 기술자 육성을 위해 <일본종이 손뜨기 전습소(테스키와시 전습소)>를 세웠다.

이번에 우리 시마네현 국제교류원은 종이뜨기 체험 취재를 위해 아베 에이시로 씨의 손자인 아베 노리마사 씨(아베 에이시로 기념관장, 시마네현 우수 전문기능자)로부터 종이뜨기 체험 지도를 받아, 이즈모 민예지 제작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즈모 민예지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닥나무, 삼지닥나무, 안피나무(雁皮)이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와시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삼지닥나무로



和紙を漉いて「出雲」を感じる

「和紙」は日本古来の紙である。その起源に関しては諸説があり、早いものは3~4世紀に始まったとされている。和紙の作り方や原材料は様々あるが、島根県で受け継がれている和紙の一つは「出雲民藝紙」がある。「民藝」というのは、1926年から柳宗悦、濱田庄司、河井寛次郎氏によって展開された「民藝運動」に由来する。柳氏は当時の美術界が関心を示さなかった、日本の暮らしの中で作られ、使われていた手仕事や日用品等に美しさを見出し、活用することを提唱していた。「民藝」は「民衆的工芸(工藝)」の略語である。

一方、1902年に現在の島根県松江市八雲町にあたる村で生まれた安部榮四郎氏は、紙漉きの家で育ったものの、その村は名高い紙漉き産地ではなかったため、安部氏は自分で研究を行うなどして技を磨き、島根県を巡回して職人を教える立場にもなった。時を経て、1931年に民藝運動の柳氏が松江を訪れ安部氏の紙漉きに関心をもち、安部氏は民藝運動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頃から安部氏の漉いた紙が「出雲民藝紙」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1983年には、安部氏は、自らが収集した数々の民芸品や貴重な和紙の資料を

フェリペ・ナシメント

保存するために「安部榮四郎記念館」を設立し、その付属施設として和紙の技術者の育成のため「手すき和紙伝習所」を立ち上げた。

今回、私たち島根県国際交流員は紙漉き体験の取材のために、安部榮四郎氏の孫である安部紀正さん(安部榮四郎記念館館長、島根県優秀専門技能者)から紙漉き体験の指導を受け、出雲民藝紙の製作工程についても色々とお聞かせいただいた。出雲民藝紙の原材料となるのは楮(こうぞ)、三桠(みつまた)、雁皮(がんび)である。それぞれ違う特徴を持つ和紙が出来上がるが、私たちは三桠のほうで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た。プロの職人が行う紙漉き本来の工程を簡単に示すと、これらの植物からはがされた皮をソーダ灰と一緒に煮て柔らかくしながら不純物を溶かし、地下水の流水でその不純物を洗い流し、不要な部分を手で取り除く。次に足踏み式のつき白やピーターという機械で繊維をほぐし、タンクの中で水とトロロアオイの根を水につけて糊状にした液「ネリ」と混ぜて糞の子で汲み込み、乾燥させて仕上げる。その漉き方は洋紙では見られない「流し漉き」といい、繊維を糞の子に広げていくことで紙を構成する層を作っていく。これは高度の技と、紙料の粘性を高める「ネリ」との

마쓰에의 전통공예 '야쿠모누리(八雲塗, 칠기 공예)' 를 체험해보자!

올리버 마셜

여행할 때,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관광지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우리 현대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요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겨냥한 관광지나 카페가 있을 정도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에 따라 장소를 판단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확실히 사진은 추억을 남기는 멋진 것이다. 하지만, '시각'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면, 더욱 풍부한 경험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이를 이유로, 여행지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 오감을 사용하여, '그 장소'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시마네현 마쓰에시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끝이 없는 관광도시이다.

이번 취재는 마쓰에시를 돌며, '만들기 체험' 여행을 떠났다. 이 성하 마을에는 전통 공예가 성행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노포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 마쓰에의 교미세 상점가 인근에 있는 <야마모토 칠기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1890년에 창업한,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노포로 '야쿠모누리' 칠기를 만들어오며, 또한 단순한 일용품부터 화려한



미술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

가게에 들어가니, 복잡한 디자인과 색상의 젓가락, 꽃이나 풍경이 그려진 원형 쟁반, 나는 새와 해엄치는 잉어의 모습이 그려진 차통, 다양한 소재의 찻잔 등이 눈에 들어왔다. 자연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도 색과 무늬에 깊이가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 첫인상으로 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이러한 예술품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칠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물론,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단순히 장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번 취재의 테마인 <만들기 체험>에 맞추어, 야마모토 칠기점이 제공하고 있는 색칠 체험에 참여해 보았다.

4대째인 야마모토 가즈나리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이 해주셨다. 야마모토 사장님은 체험하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고, 그곳에서 체험 지도를 해주실 나가야 모모코 씨를 만났다. 전국 곳곳에서 활약해 온 15년 경력의 장인인 나가야 씨는 고향인 마쓰에에 돌아와 '야쿠모누리' 칠기 공예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색칠 체험은, 젓가락, 손거울, 차통, 사진 액자 등, 참가자가 사전에 그림을 그릴 물건을 고른다. 나는 선물로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액자를



松江の伝統工芸「八雲塗」を体験しよう!

オリバー・マーシャル

旅行するとき、普段何をしますか?私は観光地を訪れ、写真を撮ることが多い。私たち現代人は、スマホで写真を撮ることが大好きである。最近、「インスタ映え」を狙った観光スポットやカフェもあるくらい、写真や動画でどれだけ美しく見えるかにより、場所を判断することが多いだろう。

たしかに、写真は思い出を残す素晴らしいものだ。しかし、何よりも「視覚」を優先させると、より豊かな経験を見逃すのでは...?それを理由に、旅行先では写真を撮るよりも、五感を使い、「その場」を感じられる「体験型観光」を求める人も増えていると思う。

そして幸いなことに、島根県松江市は体験できることが尽きない観光都市である。今回の取材は松江市を巡り、「ものづくり体験」の旅に出た。この城下町は伝統工芸が盛んで、何世代にもわたった老舗も少なくない。

その一つ、松江の京店商店街の近くにある「山本漆器店」を訪れることになった。1890年に創業した家族経営の老舗で、「八雲塗」の漆器を作り続け、またシンプルな日用品から豪華な美術品まで、様々な作品を提供している。

お店に入ると、複雑なデザインと色使いの箸、花や風景が写実された円形の盆、鳥が飛び、鯉が泳ぐ様子が描かれた茶入れ、様々な素材の茶碗などが目に飛び込んだ。自然の単純な美しさを表現しながらも、色や柄に深みがあり、上品でありながら控えめな雰囲気を与えているというのが第一印象だった。

私は、このような芸術品を作るにはかなりの時間と技術が必要だと考えていたが、実際に漆器の作り方についてほとんど知らなかった。もちろん、インターネット

で調べたり、職人に聞いたりすることもできるが、今回の取材のテーマである「ものづくり体験」に沿って、山本漆器店が開催する塗絵の絵付体験に参加してみた。

四代目である山本一成社長に暖かく迎えてもらった。山本社長は絵付体験をする奥の部屋に私達を案内し、そこに絵付けを指導してくれる長屋桃子さんに会った。全国のいたる所で活躍してきた、職歴15年の職人である長屋さんは、地元松江に戻り「八雲塗」に取り組んでいる。

この絵付体験では、箸、手鏡、茶筒、写真立など、参加者が事前に描くものを選ぶ。私は贈り物に喜ばれそうだと思い、写真立を選んだが、どの器も素敵なお土産になりそうだった。

あらかじめ描きたい図案をスマホに保存するか、紙に印刷したものを用意した。長屋さんは、表面がつるつる、裏面がざらざらした薄いトレーシングペーパーを渡してくれた。この紙のざらざらの面に、鉛筆で図案をなぞっていく。そして紙をひっくり返し、表面には、水と貝殻の粉で作った白いペーストを付けた絵筆で写した輪郭をもう一回なぞった。ペーストはすぐに乾き、図案の輪郭は粉の線になった。

平らな竹の棒で紙をこすりながら、写真立に粉の輪郭を転写した。図案を転写したら、いよいよ色を付ける。私の筆が触れた瞬間、こんなに小さなものに優雅に描くのはかなり難しいと思った。実際に体験したことと、周りに飾られていた漆器を作るために、どんなに高い技術が必要なのか想像し、とても感動した。

輪郭に従い、絵を描いている数分間、私は完全にその体験に没頭していた。一



선택했지만, 다른 재료들도 멋진 기념품이 될 것 같았다.

미리 그리고 싶은 도안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종이에 인쇄한 것을 준비했다. 나가야 써는 표면이 미끄럽고, 뒷면이 까슬까슬한 얇은 전사지를 건네주었다. 이 종이의 까슬까슬한 면에, 도안을 덧대 연필로 본을 뜬다.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표면에는 물과 조개껍데기 가루로 만든 흰 용액을 묻힌 붓으로, 비춰서 보이는 도안의 윤곽에 다시 한번 덧대 그렸다. 흰 용액은 금방 말랐고, 도안의 윤곽은 가루로 된 선이 되었다.

평평한 대나무 막대기로, 종이를 문지르면서, 사진 액자에 가루로 된 윤곽을 전사했다. 도안의 전사가 끝나면, 드디어 색을 입힌다. 나의 붓이 닿는 순간, 이렇게 작은 물건에 우아하게 그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체험해 보니, 주변에 장식된 칠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되었고, 매우 감동하였다.

윤곽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몇 분 동안, 나는 완전히 체험에 몰두해 있었다. 선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걱정거리나 생각이 없어졌다. 가게 안을 걷는 것만으로는 결코 맞볼 수 없는, 정신없는 일상에서 해방된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그림 그리기가 끝나면, 8시간 정도 건조한다. 또한, 색깔이 마르면,



처음에는 색이 어두워지고, 다 마르면 밝아진다고 나가야 써는 설명했다.

야마모토 칠기점의 그림 칠하기 체험에서는, 이미 옷칠이 된 물건에 그림을 그리고, 그 이상 연마시키지 않는다. 초보자라도 즐길 수 있는 심플한 공정으로 체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색칠하기는 어디까지나 ‘야쿠모누리’ 칠기 공예의 일부분이며, 그 그림이 물건에 녹아들도록 보이게 하기 위한 ‘연마’도 중요한 공정이다.

야쿠모누리는 그림 위에 투칠(透漆)로 불리는 사탕 빛의 반투명한 옷칠을 여러 번 덧칠하고 연마함으로써,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나가야 써는 알려주었다. 칠기를 몇 년 계속 사용하면, 빛의 작용으로 투칠의 선명도가 높아져, 아래에 그려진 칠그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림 위에 옷을 몇 층 덧칠하는 것은, 다른 산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단한 공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야쿠모누리’의 재미있는 특징이다. 예로, 야마모토 사장님이 최근 만든 목제 컵과 몇 년 사용한 컵을 두 개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사용한 컵이 선명하고, 오히려 신제품으로 보였다!

야마모토 칠기점에서의 체험은 마쓰에의 전통공예에 대해서 알게 되는 멋진 기회라고 느꼈다. 내 취미는 사진이지만, 앞으로 ‘체험’을 통해서 마쓰에시의 문화나 역사를 접해보고 싶다. 나중에 내가 그린 그림의 사진 액자를 볼 때, 분명 액자에 칠해진 색채 못지않게 생생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筆一筆に集中し、心配事や考え事がなくなった。店内を歩いているだけでは決して味わえない、日常の喧騒から解放された心地よい時間だった。

絵付けが終わったら、8時間くらい乾燥させる。また、色漆が乾くと、最初は色が暗くなり、乾き切ると明るくなると長屋さんは説明した。

山本漆器店の絵付け体験では、すでに漆を塗ってあるものに絵を描き、それ以上磨かないという、初心者でも楽しめるシンプルな工程で行う。しかし、絵付けはあくまで「八雲塗」の一部であり、その絵を器に溶け込むように見せるための「磨き」も重要な工程である。

八雲塗は、絵の上に透漆(すきうるし)と呼ばれる飴色の半透明の漆を何度も塗り重ねて磨くことで、絵がある程度見えなくなるのだと長屋さんは教えてくれ

た。漆器を何年か使い続けると、光の作用で透漆が透明度を増し、下に描かれた漆絵が鮮やかに浮かびあがってくる。

絵の上に漆を何層も塗り重ねるのは、他の産地ではなかなか見ることのない大変な工程であるが、これこそが「八雲塗」の面白い特徴である。そこで例として、山本社長が最近作られた木製のカップと、数年使用したカップを2つ見せてくれた。驚いたことに、使い込まれたカップのほうが鮮やかで、むしろ新しく見えた!

山本漆器店の絵付け体験は松江の伝統工芸について知る、素晴らしい機会だと感じた。私の趣味は写真だが、これからも「体験」を通じて松江市の文化や歴史に触れていきたいと思う。自分が絵付けをした写真立を見るときは、きっとそこに塗った色彩に負けにくいくらい鮮やかな思い出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이정현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 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Felipe Nascimento



Donovan Goto



Lee Jung-Hyun



Khakimova Liliya



Oliver Marshall